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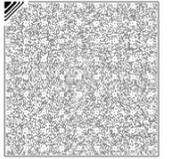


수신 대한의사협회장
(경유)

제목 대한의사협회 요청에 대한 회신

1.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2368호(2019.1.4.) 관련입니다.
 2.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일선 의료 현장에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귀 협회 회원 분들과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3. 귀 협회에서 요청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은 제3차 상대가치개편,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수가 적정화 노력,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개편 등이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진찰료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소요를 수반할 뿐아니라 진료 행태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4. 우리 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교육상담, 심층진찰, 만성질환관리, 방문진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고, 동네의원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시범사업 중인 사항은 점차 본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첫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전·후 환자에게 표준화된 교육상담이 제공되거나, 15분 이상의 심층진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교육상담) 초회 24,590원, 재회 16,800원, (심층진찰료) 24,590원
 - 둘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적절한 만성질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43,900원, (점검 및 평가료) 24,500원
(환자관리료) 28,000원, (교육상담료) 초회 34,500원, 재회 8,900~19,200원
 - 셋째, 환자가 자신의 질환의 경중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환자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의뢰 수가(14,480원~16,030원)를 산정하고,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의원급 의료

기관으로 적극적으로 회송하는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 넷째, 동네의원 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진료하면 이동 시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왕진) 수가를 개발하고, 내·외과계 만성질환자에게 적절한 교육상담이 제공되는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내·외과계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섯째, 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진료 중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료계-정부간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 정책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의료인 폭행에 대한 실태를 조사 중이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5. 앞으로 우리 부는 상기사항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 및 의료질 개선, 일차 의료 활성화, 불합리한 급여 기준 개선 등에 대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정책 파트너로 함께 상의하고 협력할 예정이니, 귀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주무관 김소연 행정사무관 이선식 보험급여과장 이종규 건강보험정책 전결 2019.2.1.
협조자 보건의료정책 이기일 국장 노홍인

시행 보험급여과-662 (2019. 2. 1.)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43 팩스번호 044-202-3934 / gicsy@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